

建設대전원유 해외에서 처분해야

에너지코스트 상승으로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초래

정유업계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건설대전원유도입 움직임과 관련, 지난 7월 8일 건설대전원유를 종전과 같이 해외에서 처분토록 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이 건의에서 건설업체가 건설대전원유를 해외에서 처분치 않고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은 국제현물시장에 판매함에 따르는 손실을 막고, 高價로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특정건설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처사가 분명하며, 정유업계로서도 사용상 많은 문제점으로 이를 인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건설대전원유는 종전과 같이 해외 처분토록 하되,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석유개발공사의 비축용 원유로 대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석유협회는 건설대전원유도입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서 ①中東産 건설대전원유는 대부분 高유황·重質원유로서 이를 도입, 제품화할 경우, 국내석유수요의 輕質化와 공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低硫黃化에 부적절하고, ② 정부의 에너지 안정확보시책에 따라 정유업계가 장기계약하에 확보한 高유황원유는 이미 사용 한도량을 상회하고 있어 또 다른 高유황원유가 추가되는 경우, 그 추가물량에 해당되는 양을 기존공급선에서 강제로 감량시켜야 되며, ③ 정책 원유의 경우, 해외현물시장에서 처분하는 가격보다 高價로 국내에서 처분하고 있어 그 부담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을뿐 아니라,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설대전원유를 비경제적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건설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또한 건설대전원유가 도입될 경우, 정책원유도입과 마찬가지로 산유국의 잉여물량처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관련산유국에서 지속적인 증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우기 상품수입과 연계하여 원유를 수출하려는 움직임 유발로 정책원유의 악순환적 도입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끝으로 경제성이 없는 건설대전원유도입은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에너지코스트를 상승시킴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시키며, 국민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精油社 脱黃시설 적극유도 石油기금의 시설자금지원 검토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정화해 나가기 위해 국내 精油5社에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朴判濟환경청장은 지난 7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도시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인 빌딩, 아파트등 난방시설과 자동차배기가스등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사전에 억제키 위해 이같이 정유5社에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朴청장은 정유5社가 탈황시설을 갖추려면 2천5백억~3천억원의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석유사업기금, 시설차관등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청은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LNG등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고, 내년 7월까지 低공해차량을 개발 보급토록 하기로 했다.

해외유전등 지원 총 2억1백94만달러

정부가 해외유전 및 석탄개발을 위해 수출입은행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모두 2억1백9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동력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 마두라·아당·나우카광구 및 北예멘 마리브유전에 수출입은행자금 4천2백67만3천달러, 석유개발기금 3천1

原油 · LPG 유전스기간 또 단축 내년부터 120일에서 90일로

정부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원유 및 LPG (액화석유가스) 에 적용하고 있는 1백20일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내년 1월부터 90일로 단축키로 했다.

재무부는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원유 및 LPG의 연지급수입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30일간 단축하기로 하고, 경과조치로 금년말까지는 1백20일의 연지급수입기간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백82만 2천달러 등 7천4백49만 5천달러를 성공불 조건, 즉 석유개발에 성공할 경우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대전原油 비싸다 4년간 1억4천만달러 더 부담

지난 4년간 국내건설업체들이 받은 해외건설대전 결제원유는 현물가격에 비해 배럴당 평균 2달러74센트가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가 도입한 가

격에 비해 모두 1억4천만달러(1천2백60억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85년까지 국내건설업체들이 건설대금으로 국내에 들여온 원유가격은 배럴당 평균 30달러 68센트로서 이는 같은 기간중 정유회사들이 도입한 현물원유가격의 배럴당 27달러94센트보다 2달러74센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국내건설업체들이 국내에 들여온 건설대전 원유는 모두 6천90만배럴(리비아 4천5백10만배

럴, 이라크 1천5백80만배럴)이며, 총도입액은 18억4천만달러 상당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原油결제 82년이후 18억달러

해외건설업체들이 中東 지역에서 공사대금조로 받은 원유는 지난 85년말 현재 모두 6천96만배럴, 18억 4천 3백만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건설업체들이 中東지역에서 공사대금조로 받은 원유는 82년 6백9만배럴(2억9백만달러어치), 83년 2천1백83만배럴(6억5천7백만달러어치), 84년 1천3백92만배럴(4억1천3백만달러어치), 85년1천9백11만배럴(5억6천3백만달러어치)로 83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럴당 평균인수단가는 30달러24센트로 연도별로는 82년 34달러39센트, 83년 30달러11센트, 84년 29달러67센트, 85년 29달러48센트로 조금씩 낮아지나, 현물시장가격 보다는 약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리비아産 원유가 4천5백10만배럴(13억9천만달러어치), 이

건설대전 결제原油와 現物원유의 가격비교

(단위: \$ / B)

	건설대전 결제原油		우리나라 現物原油도입 단가(C)	차이(A/C)		차이(B/C)	
	총해당분 (A)	國內도입분 (B)		單 價	금액(천달러)	單 價	금액(천달러)
1982	34.39	34.81	32.14	2.25	13,700	2.67	15,700
1983	30.11	31.05	28.39	1.72	37,500	2.66	24,000
1984	29.67	29.38	27.97	1.70	23,700	1.41	12,100
1985	29.48	27.33	26.07	3.41	65,200	1.26	6,200
計	30.24	30.68	27.94	2.30	140,100	2.74	58,000

국내나프타공급가격 인하

工場渡11.24%...ℓ 당 79원66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가격의 국제가격 연동제에 따라 지난 7월 1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을 11.24% 인하,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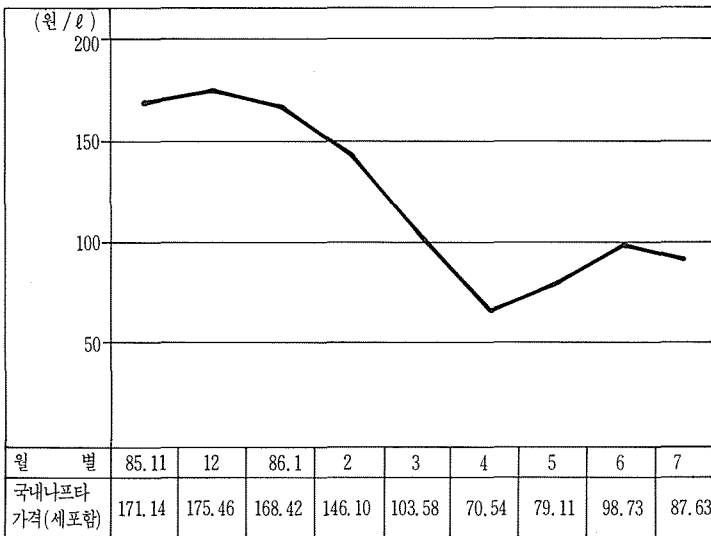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종전의 ℓ 당 89원 75전에서 79원66전으로 10원 9전이 내리고, 세포함가격기준은 종전의 ℓ 당 98원73전에서 87원63전으로 11원10전이 내렸다.

지난 6월중 국제나프타평균가격은 日本 C&F(운임포함조건) 가격 기준으로 톤당 1백26달러55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5월의 1백42달러77센트보다 16달러22센트가 내린 것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국내나프타가격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 1월=-4.01%
- 2월=-13.25%
- 3월=-29.11%
- 4월=-31.89%
- 5월=+12.15%
- 6월=+24.79%
- 7월=-11.24%

국내나프타가격(세포함) 변동 추이



라크産 원유가 1천5백85만배럴(4억5천3백만달러어치)이었다.

民正黨, 代替에너지 법안 마련 개발정책심의회·개발원등 설립

民正黨은 앞으로 예상되는 석유 및 석탄 등 化石에너지의 고갈에 대비, 바이오매스(생물자원)와 태양에너지 등 代替에너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代替에너지개발정책심의회와 기술개발을 맡을 代替에너지개발원을 설립하고, 정부 출연금과 석유안정기금 및 대체에너지 개발채권 발행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民正黨은 지난 6월 30일 중앙당사에서 2천년대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체에너지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代替에너지 개발촉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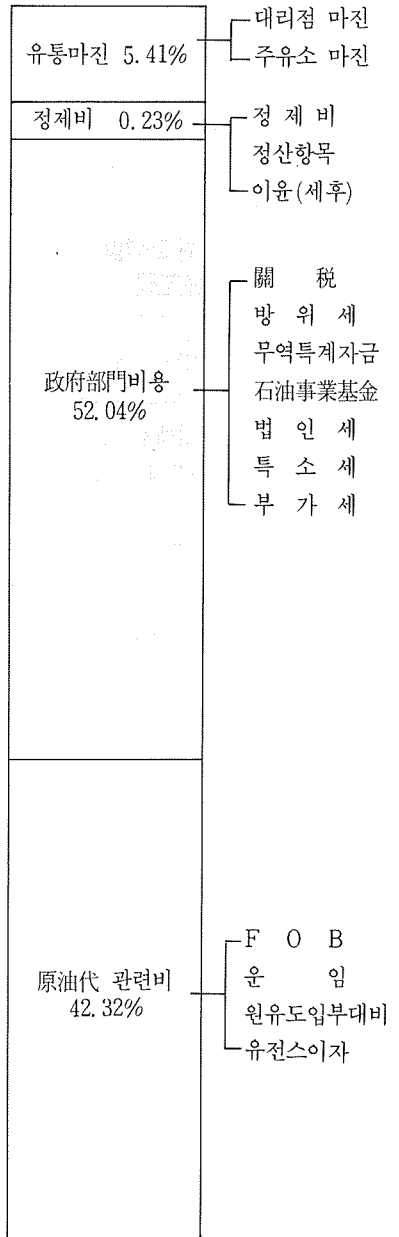
民正黨 대체에너지개발정책 추진위원장 李祥羲의원은 대체에너지개발에는 유전공학, 신소재,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따라서 민간산업계가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활유협회 정기총회 3대회장에 安明柱씨

韓國윤활유공업협회는 지난 6월27일 정기총회를 열고 3대 회장에 安明柱 油公 윤활유담당이사(사)를 선임했다.

油價의 제세공과금 너무 많다 基金·關稅 등 정부부문비용이 52%나 차지

국내 石油製品가격(소비자)의 구성내역



석유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 너무 많다.

올해 들어 정부가 관세와 석유사업기금을 각각 세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함에 따라 석유에 부과되는 각종 정부부문비용이 석유제품가격(소비자)의 52.04%에 이르는 기형적인 가격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가격(소비자)의 구성내역을 보면, 원유대 관련비가 42.32%, 유통(대리점·주유소)마진 5.41%, 정제비 0.23%인데, 비해 기금·관세 등 정부부문비용은 52.04%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日本이나 台灣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원유도입시 부과되는 정부부문비용은 日本이 배럴당 1.24달러, 台灣이 0.45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54달러로 훨씬 높다.

이와 같이 油價의 정부부문비용이 과도해짐에 따라 에너지源間의 상대가격체계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제원유가격 및 국내원유도입 복합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이익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수입원유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을 배럴당 50센트에서 1달러92센트로 인상한데 이어 5월 31일에 다시 9달러 4센트로 올렸고, 또 7월 4일에 11달러29센트로 인상했다.

또 정부는 지난 2월20일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를 배럴당 1%에서 5%로 인상한데 이어 3월29일 다시 12%로 올렸고, 또 5월31일에 15%로 인상했다.

韓國·日本·台灣의 원유수입시 정부부문비용 비교

(단위: \$/B)

	韓 國	日 本	台 灣
關稅	1.93 (15%)	0.61 (640円 /kℓ)	0.32 (2.5%)
기타	11.29 (基金) 0.32 (방위세)	0.63 (석유세 : 4.7%)	0.13 (항만세 : 1%)
計	13.54	1.24	0.45

油開公 본사 이전 강남구논현동 송암빌딩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지난 7월 21일 본사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84번지 송암빌딩으로 이전했다.

- 전화 547-5321(대표)~9
- 텔렉스 K24593
- 팩시밀리 546-4776

가짜휘발유 판 주유소적발 고객신분따라 주유조작

국내 精油會社들이 지난 해부터 가짜휘발유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 후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도 가짜휘발유를 진짜인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주유소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사넣은 피해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지하판매소와 커다란 차이가 있

다.

이들 주유소에서는 따로 가짜휘발유저장비밀탱크를 설치 주유소사무실 책상밑에 급유개폐스위치를 주입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 최근 적발된 주유소는 경기도 용인군 신갈주유소와 성동구 성수1가 동신주유소 등 3곳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이 두 주유소의 대표는 형제사이다.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압수·허가취소의 3중처벌을 받게 된다.

압수된 가짜휘발유는 가까운 精油工場에서 재정제이후 출고되어 정규제품으로 사실상 공급된다. 精油會社측에서는 몰랐던에서나 수송, 인력 동원 등을 감안할 때 가짜휘발유인수의 경제성에 회의적이며, 폐자원 활용의 차원에서 이를 인수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7월 11일 경기도 용인군 신갈주유소에서 압류된 가짜휘발유를 京仁에너지 유조차에 싣고 있는 장면.

京仁에너지는 지금까지 모두 수도

권지역에서 적발된 가짜휘발유 54,754ℓ 를 인수하였다.)

정유5사 안전 및 보안회의의 보안현황 및 사고사례 분석

정유5사 안전 및 보안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3일 油公공장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유5사 공장장을 비롯한 각사의 관계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사별 보안현황과 사고사례분석 및 열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

油公, 대졸사원 25명 채용 인문계 12명, 이공계 13명

油公은 86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25명을 7월 15일자로 채용하였다.

油公 김항덕 사장은 이들 신입사원들에게 전체와의 조화, 질서를 위해 개인주의를 버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일에 몰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인문사회계 12명, 이공계 13명으로 구성된 이들 신입사원은 8월 23일까지 본사, 공장, 선경연수원 등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마친 후, 8월 25일 본사 및 공장 각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油公, 과장급 인사관리교육 인사·조직관리 전문가 토의

油公 인사부와 노무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2박3일간씩 7차에 걸쳐 서울과 경주에서 사내 전 과장급 사원 2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인사·조직관리 전분야, 금년부터 제도화하여 시행을 앞둔 OJT, 그리고 부하에 대한 동적요소평가 등에 관해 강의, 토의 및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油公, 우수제안포상 정비부 거목분임조 등 38건

油公공장은 7월 일 대강의실에서 윤대육공장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중 평가완료된 우수제안 38건에 대한 포상식을 갖고 등급별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이날 포상을 받은 우수제안은 분임조제안 4급 8건, 5급 15건, 6급 11건, 공동제안 4급 1건, 5급 2건, 개인제안 6급 1건 등 총 38건이다. 이들 38건의 우수제안 실시로 연간 5억 8천 8백만원의 원가절감효과 및 작업능률향상이 기대된다.

油公공장, 소방 경연대회 최우수부서에 정비부 정비2과

油公공장은 화재예방 및 유사시 효과적인 진화작업 능력배양을 위하여 86년도 부서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지난 6월 18일 공장내 소방훈련장에서 가졌다.

현장부서 과단위로 20개팀이 참가한 이번 경연에서는 소방 및 안전에 관한 필기시험과 아울러 각팀당 6

명의 선수가 2개조로 편성되어 산방화재진화법(4명), 소화기사용 진화법(2명) 등의 실전을 방불케하는 실기경연을 벌였다.

이날 경연대회의 심사결과 최우수팀에는 정비2과, 우수팀에는 해상승유과와 올레핀2과가 선정되었다.

油公공장, 가족체육대회 체육동우회 창립 5주년 맞아

油公공장은 체육동우회 창립 5주년을 맞아 250여명의 회원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 22일 경주 황성공원 및 도투락월드에서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회원들의 축구경기를 비롯하여 부인들의 피구경기, 자녀들의 달리기, 가족들이 함께하는 보물찾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어 한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油公, 아르바이트생 채용 산학협동 일환으로

油公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학생 38명을 임시채용하여 이들에게 산업체 현장경험과 학비조달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40여일간 본사와 공장의 필요부서에 배치되어 자료정리 등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

油公, 낙도 어린이에게 선물 체전 참가 레슬링선수에게도

油公은 낙도 어린이 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 경상남도 사량도 돈지 국민학교에 연필깎기 40개를 전달했다.

또한 6월 23일에는 제 67회 전국체전에 참가중인 경기도 레슬링 선수단을 방문하여 최고기 100근등다수의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湖油, 공장 총무부장서훈 새마을 훈장 근면장

湖油 신현택 공장 총무부장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거행된 '86년도 상반기 우수새마을 지도자 포상식에서 전 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 근면장을 받았다.

신현택 공장 총무부장은 공장새마을운동 지도자로 선임된 이래 노사협조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해 왔으며, 사원 후생복지시설 확충 및 제도창안에 공헌하는 한편 새마을교육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국가 외채절감 시책에 기여하였고, 여천공단학원 설립의 실무자로서 공익사업 및 인보운동에 전력하는 등 그동안 공장 새마을운동 사업에 남다른 정열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湖油공장 견문 향상훈련 실시 3박4일간 45명 참가

湖油는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간 제 9기 새마을견문향상 훈련을 실시하였다.

지 강인 교대과장을 단장으로 한 45명의 훈련단원들은 빠듯한 일정속

에서도 한국중공업(주) 창원공장, (주) 유공 울산공장, 금성사 구미공장, 서울본사, 중부전선 제 2 땅굴, 온양현충사, 한국도자기(주) 청주공장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지식과 견문을 넓혔다.

이 훈련은 Q. C. 및 V. E. 기법의 선진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공장실정에 맞는 자체기법을 개발 도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湖油, 2/4분기 노사협의회 하계휴가 등 복지문제논의

湖油공장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의가 지난 6월30일 노사협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하계휴양소 설치건 및 하계휴가시행, 용접용 모자 지급 및 쌍봉사택테니스코트 증설건 등이 토의되었는데 하계휴양소는 들산 방죽포 해수욕장에 설치기로 하였으며, 하계휴가는 휴서기에 집중사용을 권장기로 하고, 용접용 모자는 안전규정을 검토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쌍봉사택테니스코트에 야간조명시설 1면을 더 증설하기로 하는 등 상호 윈윈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湖油, 신입사원 보완연수 2박3일간 43명 대상

湖油는 '86년도 신입사원 보완연수과정을 지난 7월 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천 YWCA버들캠프에서 실시하였다.

'86년 1월 6일 입사한 대졸신입사원 36명과 '85년 1월 8일 이후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으로서 보완연수과정 미이수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연수는 특히 업무협조체제강화, 태도 및 인간관계개선, 참가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입사후 실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여 스스로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례작성실습(Case Writing Game)과 역할연기(Role Playing)를 통하여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태도 및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湖油공장, 탁구반 친선대회 우승에 이창훈, 정귀철조

湖油 신협 공장 탁구반(반장 라민수 통관과장) 주최 '86 조별 복식 탁구시합이 86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성원속에 지난 6월 9일부터 23일간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공장 휴게실에서 열렸다. 매 경기마다 관전사우들의 열띤 응원속에서 치뤄진 이번 대회의 경기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	승
A조	이창훈(정비부 기계과) 정귀철(정비부 전기과)	
B조	김성일(운영부 육상출하과) 배명찬(기술부 시험과)	
C조	장석우(생산부 동력과) 김명기(설계부 설계 1과)	

京仁, 부장급 인사이동 단행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京仁에너지는 지난 6월 1일부로 기획관리실을 사장 직속으로 하며 안전환경실을 신설하는등 조직개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7월 7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장급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인사이동 내용—

본사

기획관리실장 직무대행 : 김영승

원유부장 직무대행 : 오경석

자원개발부장 : 이정기

신규사업팀장 : 서정원

업무부장 직무대행 : 강두식

전력사업부장 직무대행 : 조현기

영업관리부장 직무대행 : 박득춘

직매부장 직무대행 : 이창환

운영부장 직무대행 : 이세영

공장

안전환경실장 : 황의박

관리실 발전팀장 : 김헌태

총무부장 직무대행 : 김원배

발전부장 : 유교환

京仁, 하계휴양소 설치 숙박 및 교통편 제공

京仁에너지는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임직원 대상으로 3박4일(공휴일 제외)의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동기간중 화진포, 설악산, 수안보, 대천등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해 2박3일의 휴양소 이용 및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공장 부근 송도유원지에도 하계 휴양소를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낙산 및 백담사등을 휴양지로 택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교통비를 회사에서 부담기로 하였다.

京仁, 북한산 및 삼정산 등반 첫째 토요일은 산행의 날로

경인에너지는 86년 6월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직원의 건강 및 자연 보호운동을 위해 본사 및 공장으로 나눠 인근 산으로 정기산행을 시작하였는데, 이번달에는 7월 5일 북한산 및 삼정산으로 각각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시 오물수거등 자연보호운동을 벌이고 북한산 정상 대남문에서 프라자호텔에서 준비한 도시락 및 간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각부대항 장기자랑을 벌였는데, 맑은공기와 자연속에서 업무에 지친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었다.

京仁, 사무개선 발표대회 공장엔 품질관리 대회도

경인에너지는 본사에서 제 1회 사무개선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6월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7개 분임조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경연을 벌인 결과 「금연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발표한 경리부 청신호분임조가 1등을 차지하였다.

또한 공장에선 7월 11일 9개 분임조가 참가한 가운데 제 7회 86년도 공장새마을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1등은 「보일러 화염검출기 수명연장」을 발표한 발전정비부 햇불분임조가 차지하였다.

京仁본사 기우회 창립 회장에 박상원부장

京仁에너지 본사 직원들은 직장동료간의 친목도모 및 정신수양과 아울러 인천공장 기우회와 상호교류대국을 가짐으로써 본사와 공장간의 유대결속등을 위해 바둑 동우회를 설립했다.

6월 30일 본사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박상원부장, 총

무에 한영교사우(아마 1급)를 선임했다. 회원은 45명으로 여직원도 5명이나 참가하여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급수 조정후 창립대회를 갖고 공장 및 그룹사 기우회와의 친선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雙龍, 창립 10주년 기념식 가져 李承源사장, 도약기반 구축에 최대 역점

雙龍精油는 6월 2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김석원 회장을 비롯한 쌍용그룹 계열사 사장 등 그룹내 임직원 40여명과 20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산공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10년 근속사원 표창과 이승원사장의 기념사, 김석원 회장의 축사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10년 장기근속자 13명에게는 기념패와 함께 기념품이 증정됐다.

이승원 사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의 지난 10년은 끝없는 도전과 극복의 값진 체험이 서린 파란만장의 10년이었다」고 회고하고 「우리는 거의 맨주먹으로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大役事에 도전, 각고의 노력끝에 국내 초유의 최신식 유풀정유 공장 건설이라는 공전의 기적을 이룩해 내고야 말았던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서 이승원사장은 「우리 쌍용정유는 국내최초의 민족자본 정유사라는 부동의 긍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기업적 역량을 한데모아 다



가을 격변의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의 구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출하여 도약의 길을 모색하는 언제나 깨어있는 기업으로서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원회장은 축사에서「불굴의 용기로 짧은 기간에 안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쌍용정유의 지난 10년은 영광스러운 쌍용 100 년사의 대로를 다져나가는 축매제가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노고를 치하한후,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10년을 보내고 다시 비장한 각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엄숙한 출발점에 서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앞으로 닥쳐올 갖가지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면서 여전히 국가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 주체로서, 국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민족자본 정유회사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가운데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雙龍, 한국·이란 경제협력 논의 李承源사장, 사절단 맞아 만찬

雙龍精油 李承源사장은 지난 6월 2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내한 중인 이란경제사절단 일행을 쌍용하우스에 초청, 만찬을 주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승원사장, 김기호(주) 쌍용사장, 김석준 쌍용건설사장 등 쌍용측 경영진 9명과 '코스로우타즈' 이란 상무성 차관을 비롯한 이란경제사절단 일행 16명이 참석했다. 이란 경제사절단은 지난 6월23일에 내한, 한국과 이란양국간의 경제관심사를 협의한 후 30일 한국을 떠났다.

雙龍, 86년도 정기건강진단 本社 및 工場 임직원 대상

雙龍精油는 '86년도 정기 건강진단을 본사와 온산공장에서 각각 실시했다.

본사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직원 211명을 대상으로 백병원 건강관

리과에서 혈압·소변·혈액검사등 기초검사와 간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온산공장은 6월 11, 12일 이틀동안 공장임직원 570명을 대상으로 X선 촬영등 일반진단외에 혈액검사에 의한 신장·심장·간장검사등 6가지 검사가 울산동 강병원의료진의 출장검진으로 실시됐다.

雙龍, 하계휴양소 개설 7월 14일부터 진하·삼포에

雙龍精油 온산공장은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원 하계휴양소를 개설, 경남 울주군 서생면 소재 진하해수욕장에 50평 규모의 텐트를 설치하는 한편 휴양소 버스 운행계획, 사위장 및 물놀이용품구비등 이용편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본사에서도 금년부터 하계휴양소를 개설키로 하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소재 삼포해수욕장에 현대식 양옥 2동을 임대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용할 계획이다.

절약하는 국민앞에

석유파동 피해간다